

역학		번호: J - B - 26			
제 목	국문	우리나라 도시지역 노인들의 치매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RISK FACTORS OF DEMENTIA FOR ELDERLY PEOPLE IN URBAN AREAS OF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우선옥 <sup>1)</sup> , 배상수 <sup>1)</sup> , 이훈재 <sup>1)</sup> , 나덕렬 <sup>2)</sup> , 연병길 <sup>3)</sup> , 강연욱 <sup>4)</sup> , 박찬병 <sup>5)</sup> , 김동현 <sup>1)</sup>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3)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및 4) 사회과학부 심리학과 2)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5) 수원의료원			
	영문	Sun Ok Woo <sup>1)</sup> , Sang Soo Bae <sup>1)</sup> , Hun Jae Lee <sup>1)</sup> , Duk L Na <sup>2)</sup> , Byeon Gil Yeon <sup>3)</sup> , Yeon Wook Kang <sup>4)</sup> , Chan Byung Park <sup>5)</sup> , Dong Hyun Kim <sup>1)</sup> 1)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3)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and 4)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Hallym University 2) 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5) Suwon Medical Center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 지역사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도시지역 노인에서의 치매 병인론 규명에 기여하고, 노인성 치매의 효율적 예방과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광명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무작위 추출된 표본인구 946명 중에서 1, 2차에 걸친 확진검사를 완료한 22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치매로 진단된 62명(알츠하이머 질환 24명, 혈관성치매 24명, 혼합형 치매 14명)을 환자군으로, 나머지 161명을 대조군으로 정하였다.</p> <p>3. 연구결과 1) 치매환자군의 평균연령은 75.9세로 정상대조군(73.4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자군 중 여성의 비율은 79.0%로 대조군(75.2%) 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문맹의 비율은 65.0%로 대조군(42.1%)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치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위험요인과 치매와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고연령, 문맹, 뇌졸중 과거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치매의 대표적인 아형인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요인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고연령과 문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과 문맹 노인에 대한 aOR(adjusted Odds Ratio)는 각각 10.43(95 2.13-51.18)과 2.97(95 1.08-8.14)이었다. 4) 혈관성 치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으로는 뇌졸중 과거력과 직계가족에서의 치매 가족력이었으며, 각각에 대한 aOR는 7.03(95 2.53-19.49)과 5.12(1.32-19.95)였다. 5) 치매 아형에 따른 기타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비교하면, 여성 및 뇌손상 과거력은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과거력은 혈관성 치매와 관련성이 큰 경향을 보였다.</p>					